

화재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조태엽 <홍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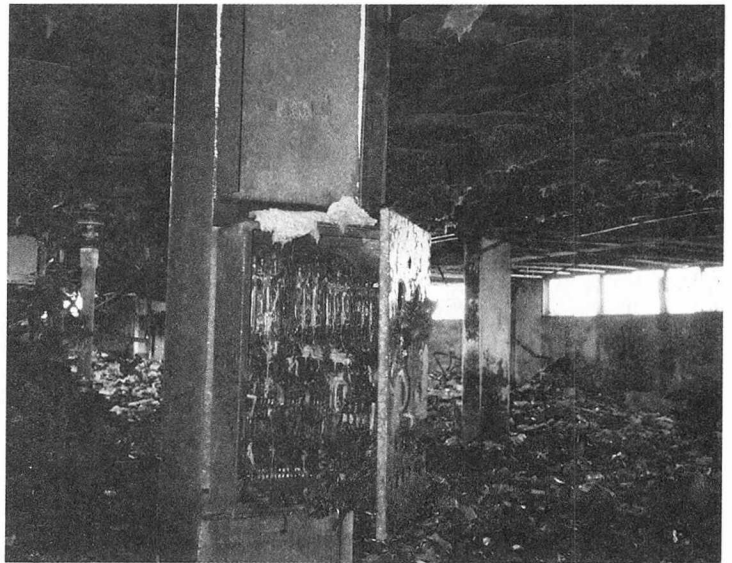
1336년. 고려말 공민왕시대. 원나라에 서장관으로 갔다가 붓대속에 목화종자를 숨겨가지고 와서 당시 경상북도 산청군에 살았던 장인 정천익에게 주어 재배케한 문익점. 그가 가져온 목화종류는 이불솜이나 옷솜에 특히 유용한 아시아면이라 한다. 그로인해서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래왔는지는 모르나 흰색옷을 즐겨 이용해온 우리 민족의 습성과 잘 맞아서 면직물은 크게 이용되어 왔다.

7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면직물 공장은 공장의 대형화,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대량생산체제와 수출산업으로서의 기반확충을 꾀해 세계유수의 면직물공업국으로 발전했다. 최근엔 면직물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이 국민 소득의 향상과 함께 증가일로에 있으며, 특히 T/C를 비롯한 면혼방직물이 순면직물보다 더욱 실용적인 직물로 평가받고 있어 그 생산과 소비는 더욱 증가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두번의 큰 사고를 당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일심동체하여 어려움을 잘 극복,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섬유업계를 이어나온 (주)백양을 찾았다.

• 연혁

(주)백양은 1946년 5월에 '한홍메리야스'를 전신으로 설립, 1979년 2월에 법인체로 등록하면서 (주)백양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현재는 연간 1,500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규모로, 그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46. 5.13 한홍메리야스 공장 설립
- 1955. 5.13 한홍산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1957. 8. 5 백양상표 등록
- 1967.10.30 서울 영등포구에 제2 공장 설립
- 1975. 6. 2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 1977.12.21 WOOL MARK 획득
- 1979. 2.27 (주)백양으로 상호변경
- 1984. 3. 5 (주)백양 산업체부설 학교 설립
- 1985. 6. 1 익산편직공장 준공
- 1987. 4. 1 스타킹공장 준공

• 화재발생 및 경위

화재사고가 난 전주공장은 63,000여㎡ 대지위에 공장, 창고, 사무실, 학교 등 총 18개 건물 연 84,000여㎡로 이루어져 있으며 충남방직, 대농, 대한방직, 국제방직, 경방 등으로부터 원사를 구입하여 편직과 염색을 주요 공정으로 하고 있다.

화재는 88년 12월 4일, 일요일이라 전날 야근 근무자들도 모두 퇴근한 오전 9시 30분경에 순찰근무중이던 경비원 장대수씨에게 발견되었다. 장대수씨는 인근 전주소방서로 화재 신고를 하는 즉시 당시 공장내에 있던 몇몇 직원들과 함께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해 자체진화작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건조실 옆에 위치한 창고안의 원사와 원단 등이 타면

서 내뿜는 화염과 유독가스, 화염 등으로 인해 현장접근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행히 긴급출동한 23대의 소방차와 비상연락망을 통해 달려온 200여명의 직원들이 진화를 시작해 화재는 발생 3시간여만에 완전진화될 수 있었다.

이 화재의 복구작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인 이듬해 2월 11일, 완제품창고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다. 평소 사람의 출입이 잦지 않은 곳이었으나 당시 주위에서 작업중이던 종업원들에게 목격될 수 있었다. 자체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해 긴급히 진화를 시작했으나 완제품들이 타면서 뿜어대는 유독가스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다고 한다.

● 피해상황 및 손해보상

1차 화재 결과 건조실 건물 2층 전체가 피해를 입었는데, 가장 심하게 소손된 부분은 심한 열을 받았던 2층 상부와 3층 바닥이었다. 건물내부의 블록벽과 알루미늄 도어, 철제문, 조명시설, 동력시설, 각종 전기시설 등은 대부분 대수선을 하거나 재시설을 해야했다. 특히 보험목적물인 고주파건조기와 와인더기 등은 장시간 화열로 인해 가열되어 있던 상태에서 진화작업시 주수되었던 소화수로 다시 급냉각되면서 주요부속이 열화되어 정상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건조기의 제조회사였던 독일의 '크란쯔'사로부터 기술자가 직접 내한하여 독일에서 공급받은

부품으로 수리하였다.

한편 (주)백양은 88년 5월 28일자로 한국화재보험협회에 건물 및 기계시설을 보험목적물로 해 보험금액 141억원의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보험기간 1년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화재신고후 보험목적물의 피해상황, 사고경위, 화재원인 등에 대한 손해사정작업 결과 1차화재에 대해서는 2억6천9백만원이 지급되었고, 2차화재시에는 8천9백7십만원의 보험금이 보상되었다.

● 복구 후 상황

전주공장의 소방담당자 백운기씨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입사해서 현장을 목격할 수는 없었지만 면제품공장의 화재가 다른 여타의 공장에 비해 더욱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63,000여㎡의 대규모에 18개나 되는 공장건물, 몇안되는 인원으로 모두를 확인점검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제품생산과 방재시설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인식으로 이 방면에 대한 예방활동은 그리 순조로운 것 만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장내에서 직접 일하는 근로자 한사람 한사람이 화재발생 대비를 위한 준비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 믿으며 직원들에 대한 화재예방 연간계획을 필두로 화재보험협회의 각종 홍보물을 통한 교육, 화재발생초기에 효과적인 소화기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 실시할 계획이라 한다.

이와는 별도로 화재진압작업시 장애물이었던 코니탑(연결천막)을 건물보수시에 완전 제거하여 유사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공지거리가 최대로 확보될 수 있게 했으며, 건물내에 방화벽을 설치해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화재보수작업시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전설비 등도 모두 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다.

면공장에서는 특히 많은 분진으로 여타의 공장에 비해 화재발생위험이 아주 높다. 두차례의 화재를 겪은 후이긴하지만 이같은 설비와 예방교육,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를 임직원 모두가 가다듬을 때 아무리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공장이라 해도 가장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되새긴다. ☉

가정용 소화기 비치캠페인

지난 89년 1년중 발생한 12,704건의 화재중 3,754건이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집에 소화기 한대씩 비치하여 화재로부터 내가정을 보호합시다.